

기획재정부 <small>MINISTRY OF STRATEGIC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</small>	보도 참고 자료	
	보도일시 2008. 6. 15(일) 09:00 부터	
배포일시 2008. 6. 13(금) 10:00	담당부서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ASEM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	
담당과장 이승재(010-9492-1284) 이대중(017-608-7200)	담당자 백누리 사무관(010-6600-3121) 박은숙 사무관(010-5096-3415)	

제목: ASEM 국제컨퍼런스 발표자료 요지

-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(08.6.16일, 월)와 연계하여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가 08.6.15(일) 09:00~18:00시 제주 신라호텔 한라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
- 동 회의에서 아시아-유럽간 협력과 관련하여 다수의 발표자들이 발표를 할 예정인 바, 동 발표자료의 요지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
 - 첨부된 자료는 각 발표 예정자의 개별적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또는 다른 ASEM 회원국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하며
 - 컨퍼런스 진행과정에서 실제 발표자 및 발표내용이 첨부된 자료와 상이하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- 첨 부 1. ASEM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개요(잠정)
2. ASEM 국제컨퍼런스 주요 발표 요지(잠정)

기획재정부 대변인

<첨부 1> ASEM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개요(잠정)

시 간	주요 내용
09:00-09:40	I. 개회식 : ASEM - 협력과 통합을 위한 가교 - 의장: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- 기조연설: Christine Lagarde 프랑스 재무장관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(前 재정경제부 장관)
09:40-11:00	II. 유럽의 경험이 아시아 통합에 주는 시사점 - 의장: Akira Kojima 일본경제연구센터 원장 - 발표자: 박영철 고려대/Charles Wyplosz 제네바 국제대학원 - 토론자: Lucas Papademos 유럽중앙은행(ECB) 부총재 Yunling Zhang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
11:00-11:20	(휴 식)
11:20-13:00	III. 국제 금융 불안정에 직면한 유럽과 아시아: 역내 금융 통합이 금융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? - 의장 : Hiroshi Watanabe 일본국제금융센터 특별고문(前 일본 재무차관) - 발표자: Masahiro Kawai ADB Institute 원장, Benoît Cœuré, Ramón Gascón - 토론자: Yongding Yu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 등
13:00-14:30	(오 찬)
14:30-16:10	IV. 유럽연합과 아시아의 상호의존성 심화: 정책적 합의 - 의장: Klaus Regling EC 경제통화위원 - 발표자: Jean Pisani Ferry BRUEGEL 연구소 Yansheng Zhang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장 - 토론자: Jorge Braga de Macedo (前 포르투갈 재무장관)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
16:10-16:40	(휴 식)
16:40-18:00	V. 패널토론: 유럽연합-아시아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도전과 기회 - 의장: Wolfgang Munchau 파이낸셜 타임즈 편집장 - 패널: Joaquín Almunia EC 경제통화 집행위원 Supachai Panitchpakdi UNCTAD 사무총장 등
18:00-18:15	VI. 폐회사 : Andrej Bajuk 슬로베니아 재무장관

ASEM 국제 컨퍼런스 주요 발표자료 요지(잠정)

- ◇ 동 자료는 2008. 6. 15(일) 9:00~18:00시, 제주 신라호텔 한라홀에서 개최되는 “ASEM 국제 컨퍼런스”에서 발표될 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
- ◇ 동 자료는 각 발표 예정자의 개별적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또는 다른 ASEM 회원국의 입장과는 무관하며
 - 실제 세미나 과정에서 발표자 및 발표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

Session 2 : 유럽의 경험이 아시아 통합에 주는 시사점

1. Session 2 개요

- 의장 : Akira Kojima 원장(日 경제연구센터)
- 발표자 : 박영철 교수(고려대), Charles Wyplosz 교수(제네바 국제대학원)
- 발표논문 : "Monetary and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: The Relevance of European Experience" (발표자 공동연구)
- 토론자 : Lucas Papademos ECB부총재
Yunling Zhang 소장(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)

2. 발표내용

- '97-98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의 재발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 내부·외부적 노력을 기울여옴
 - 내부적으로는 외환보유고 축적 및 금융부문 구조개혁 노력
 - 외부적으로는 동아시아 통화·금융통합으로 위기에 공동 대응 노력
 - 무역에 개방적인 동아시아와 유럽은 환율 변동에 대한 반감을 공유
 - 유럽은 1970년대 고정환율체제가 붕괴된 이후 역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 > ERM* 체제 → 화폐통합(Euro)
 - * ERM(Exchange Rate Mechanism) : 환율의 변동폭을 기준환율의 상하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환율이 변동범위를 벗어날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변동을 방어하는 제도
 - 동아시아 국가들도 외환위기 이후 환율 안정 및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역내 국가들의 공조 필요성 자각

□ 동아시아의 금융통합 노력 : CMI · ABMI

- CMI(Chiang Mai Initiative) : ASEAN+3간 외환보유액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환위기 발생시 회원국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
↳ 위기발생시 공동 방어시스템
- '08.5.4일 제11차 ASEAN+3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“CMI 제원규모를 800억불로 정하고, 한·중·일 3국이 전체 재원의 80%(640억불), 아세안 10개국이 20%(160억불)를 분담”하기로 합의
- ABMI(Asian Bond Market Initiative) : 아시아국가들이 외환위기 이후 축적해온 여유자금을 역내에서 안정적인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시아채권시장 발전을 추진
- 역내 채권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구, 역내 채권지급 결제기구 설립 등 인프라 구축 방안 논의중
- 그러나 자본이동성 제한,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체제, 역내 결제 및 보증 시스템 구축 지연 등으로 역내채권시장 발달이 어려운 상황

□ 유럽 경험의 시사점 : 환율안정 및 금융규제 철폐

- 향후 CMI는 ERP(D)(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, 역내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대화)의 제도화를 통해 각국의 경제상황 정보교류 및 공동의 정책협조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 예상
- 공동유동성 지원제도인 CMI 다자화와 아울러 상호간의 정책 협조를 강화할 필요
- 유럽의 경우도 공동출자 제도인 EMCF(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)를 설립하였으나 정책협조 부족 등으로 실패
- 또한 ABMI의 경우도 금융규제가 제거된다면 아시아채권시장은 자생적으로 세계 금융체제에 통합되어갈 것
- 유럽의 경우 금융규제를 개혁하자 즉시 역내통화표시의 국제 채권발행이 활성화된 바 있음

□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음

- ① (완전한 자본자유화) 공정하고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를 전제
 - 중국은 위안화가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도록 태환성 확보 필요
 - 그러나 아시아는 수출이 성장의 원동력으로,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허용하는데 매우 신중함
- ② (역내 환율안정화) 각자의 환율 바스켓에 대한 변동성을 제한
 - 유럽처럼 무역 개방에 적극적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매력적인 방안 → ACU(Asian Currency Unit) 논의 진행
 - * 역내 국가의 GDP, 무역규모, 인구, 자본자유화 정도를 고려하여 역내 통화를 가중평균한 통화바스켓

Session 3 : 국제 금융 불안정에 직면한 유럽과 아시아

- 역내 금융 통합이 금융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? -

1. Session 3 개요

□ 의장 : Hiroshi Watanabe 일본국제금융센터 특별고문(前 일본 재무 차관)

□ 발표자 : 1. Masahiro Kawai 소장(ADB)
2. Benoît Cœuré (Multilateral Affairs and Development Policy 원장, the Paris Club 공동 회장)
3. Ramón Gascón (BBVA China Country Manager)

□ 발표논문

1. Global Credit and Inflation Shocks and Asia's Policy Challenges
2. Anatomy of a Modern Credit Crisis

□ 토론자 : Yongding Yu 소장(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)
Antonio de Lecea 위원(EC 국제경제금융위원회)

2. 발표내용

2-1 Global Credit and Inflation Shocks and Asia's Policy Challenges

□ 현재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경기침체, 유가 및 원자재·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해 있음

○ 이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경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중한 거시경제정책을 추구해야 함

□ 금융 부문의 규제 및 감독 선진화, 인플레이션 완화 등 금융현안에 대응하여 지역 금융 협력은 필수이며

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음

① CMI(외환보유액 출자를 통한 공동 위기대응 시스템) 발전 및 ERP의 제도화를 통한 경제 정책 상호 협력 및 정책 대화 추진

② ABMI(아시아채권시장 형성)를 통해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이고, 통합된 동아시아 금융 네트워크 구축

- 상호 금융정책 공조를 위해 "Asian Financial Stability Forum"의 설립(각국 재무부, 중앙은행, 금융 규제 및 감독기관으로 구성)

③ 거시경제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환율 정책 공조 필요

- 미국의 경기침체 및 금융 혼란,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 등으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
⇒ 이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국가간 환율 조정에 대한 실천적 정책 마련

- ACU(동아시아 통화 바스켓)를 통한 역내 환율 안정 및 금융 통합 논의 진전 필요

2-2 Anatomy of a Modern Credit Crisis

- 2007년 신용위기는 신용파생상품(CDS)의 등장과 함께 감독당국, 가계 및 금융기관의 복합적 리스크관리 실패에서 비롯
 - 감독당국은 규제 미비 및 감독 부실로 신용 버블 양산,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용인
 - 금융기관은 구조화 신용상품에 대해 잠재적 리스크를 포함하여 다각적 리스크 관리 소홀
 - 신용평가기관은 신용상품 판매회사 자산 및 구조화 금융 리스크 평가 실패 → AAA 등급 남발 → 높은 신용등급을 신뢰한 투자자의 과다 레버리지 유발

- 금변 신용위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
 - 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사건은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발생 (통화정책의 실패)한 것이 아니라, 감독권 분리 및 감독 규정의 부재(감독당국의 실패)에서 비롯
 - ②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, 건전성감독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양자는 병행되어야 함
 - 이자율(통화정책)로 인플레이션 및 금융안정(리스크관리)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하면 곤란

Session 4 : EU와 아시아의 상호의존성 심화

1. Session 4 개요

- 의장 : Klaus Regling 위원(EC경제통화위원회)

- 발표자 : 1. Jean Pisani-Ferry 소장(BRUEGEL 연구소)
2. Yansheng Zhang 소장(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)

- 발표논문
 - 1. Asia-Europe : The Missing Link
 - 2. Trad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EU, Interactions and Outlook

- 토론자 : Jorge Braga de Macedo 원장
(Tropical Research Institute, 前 포르투갈 재무장관)
채 옥 원장(대외경제정책연구원)

2. 발표내용

2-1 Asia-Europe : The Missing Link

※ 논문에서는 세계를 4개 지역 (동아시아(ASEAN+3), 북미(미국, 캐나다, 멕시코), EU, rest of the world)으로 구분하고 동아시아, 북미, EU를 중심으로 논의

□ EU·북미는 금융연계,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무역연계가 강하고 동아시아와 유럽간에는 금융 연관 관계가 미약(The Missing Link)

○ 유럽과 북미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무역이 거시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제한적

-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다른 두 지역과의 무역관계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월등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

○ 금융측면에서는 유럽과 북미는 상호 깊숙히 통합된 데 반해, 동아시아는 세계금융네트워크에 대한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함

⇒ 지역간 거시경제적 충격의 파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

□ 위와 같은 전제 하에 동 논문에서는 세계 경제의 틀 안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관계를 연구

○ 최근 금융 혼란, 미국의 경기하강 및 에너지·원자재가격 상승의 환경에서 아시아 및 유럽의 거시경제적 영향 논의

○ 환율의 국제적 조정 과정에서 미국, 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상호관계를 조명

- 특히 동아시아 통화의 US 달러 대비 절상이나 연계성 약화로 인해 유럽이 혜택을 입을지 여부에 주목

2-2 Trad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EU, Interactions and Outlook

□ 동아시아 국가간에는 제조업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
⇒ 최종상품은 미국·EU에 수출

○ (일본, 한국) 기술, 상표, 핵심 부품을 가공무역 국가에 제공

○ (중국, 대만) 원자재, 부품 수입 → 조립·가공 → 최종상품 수출

- 특히 중국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, 토지 등을 제공하여 동아시아 제조업 네트워크 중 가공무역 대부분을 담당

□ 현재 EU는 중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¹⁾

○ 중국→EU: 기계 및 전자제품, 노동집약적(섬유, 완구 등) 상품 수출

○ EU→중국: FDI 투자를 통해 기술, 상표, 핵심 부품 제공

□ 향후 중국과 EU의 관계는 중국의 對EU 무역흑자 감소와 중국의 對 EU 직접투자 확대로 전망됨

○ 현재 중국 무역정책은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음

i) 위안화 절상, ii) 공해를 유발하는 에너지·원자재 집약적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인상 및 수출 리베이트 축소 또는 철폐
iii) FDI에 의해 주도되는 수출구조 전환 장려²⁾ 등

○ 중국의 성장 패턴이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EU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 ⇒ 중국의 對EU 무역흑자 감소

○ 또한 중국의 對EU 투자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

- 최첨단 산업, R&D 협력, 물류센터 등 여러분야에서 중국과 EU의 관계 심화 → 기술 전이효과 → 상호발전 고취

1) 중국 수출지역 비중('07.%) : EU(19.7), 미국(19.1), 일본(8.4), 한국(4.6)

2) 가공무역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, 80%이상의 제품이 FDI 사업체에서 생산·수출